그대는 자비보살

부산지역 제1호 녹색사찰 도림사 주지 정찬 스님

현수막 가방에 깃든 자비, 도심서 피어난 녹색불교

도심 속 수행처, 생태로 피어난 도림사
폐현수막 한 장에 담긴 자비와 불성
올해 상반기 만든 가방만 6천여 개
복지관·요양병원·공공기관 등에 전달
녹색사찰 캠페인 등 다양한 대외활동
환경 수행자로서의 길 꾸준히 걸어와
불교적 생태운동의 확산과 실천 앞장
도림사, 불교환경운동 모범 자리 잡아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정찬 스님은…1972년 지홍 스님을 은사로 서봉사에서 출가한 스님은 1979년 운문승가대학을 졸업하고, 선학원 연대선원 능인학생회 지도법사를 지냈다. 이후 1983년부터 1991년까지는 불국사 말사 심원사 주지를, 1991년부터는 조계사 말사 도림사 주지를 맡아 현재까지 수행과 포교에 힘쓰고 있다. 스님은 1995년부터 20년간 도림사 어린이 · 청소년 법회를 이끌었으며,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부산지구 이사, 동래경찰서 경승, 복지법인 불국토 이사, 부산BBS불교방송 '법소리' 지도법사로도 활동했다. 특히 도림사에서는 폐현수막을 활용한 앞치마 · 가방 제작, 보자기 주머니와 신문지 봉투 사용, 한지 연등 제작, EM발효액 나눔, 도심숲 정화 캠페인, 환경교육 등 다양한 생태 활동을 꾸준히 실천해 왔다. 도림사는 2021년 부산 제1호 녹색사찰로 지정됐고, 2023 · 2024년 녹색사찰대회 관세음상, 부산불교환경연대 공로상을 수상했다. 현재 스님은 부산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이자 부산여성불자회 환경자문위원으로 불교적 생태운동의 실천과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정찬 스님이 신도와 함께 가방으로 거듭날 폐현수막을 세탁하고 있다.


정찬 스님이 가방 바느질에 앞서 폐현수막을 자르고 있다.


4월 14일 반야선원에서 환경운동 실천사례를 강의하는 정찬 스님.



도림사 보현회와 환경정화 활동을 하며 불교생태운동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요즘 같은 날씨는 지구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처럼 느껴진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이상기후·환경 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그 물음 앞에 필요한 것은 거창한 담론이 아니라, 작지만 지속적인 실천이다.

그 해답을 몸소 보여주는 이가 있다. 지난 6월 9일 부산 금정산 자락에 위치한 도림사를 찾았다. 빽빽한 아파트 숲 한가운데 도심의 소음과 열기를 피해 숨은 듯 자리 잡은 절. 마치 도심 속 은신처처럼 고요하고 단정한 공간이다. 절로 들어서는 길 초입에는 산딸기가 지천으로 열려 있고, 도림사 앞 숲길에는 동네 유치원 아이들이 뛰놀고 있다. 회색 도시 한복판에서 마주한 도림사는 자연을 곁에 두고 살아가려는 선택, 일상을 정갈하게 가꾸려는 태도가 공간 전체에 배어 있었다.

도림사에서 만난 정찬 스님은 폐현수막을 가방으로 되살리고 수세미를 길러 나누고, 한지 자연친화등을 손수 만들며 '환경 수행'의 길을 묵묵히 걷고 있다. 스님에게 환경은 실천이자 수행이며, 부처님 가르침의 확장이다. 도심 한복판에서 시작된 그 조용한 실천은 거대한 불교의 화엄세계로 이어지고 있었다.

폐현수막, 수행의 도구가 되다

한여름 절 마당. 햇살 아래 놓인 커다란 고무대야에 폐현수막이 담겨 있다. 이엠(EM)세제를 넣고 발로 밟아가며 씻는 동안 이마에는 구슬땀이 연신 맺힌다. 햇살에 말려 물기를 제거한 현수막을 정성스레 닦은 후, 작업실 안으로 옮긴다. 그곳엔 이미 여러 명의 신도들이 둘러앉아 있다. 천을 자르고 다듬고 바느질을 하는 손길이 분주하다. 절 마루 한편에서는 다 만든 가방을 들고 함께 웃음 짓는 모습이 정겹다. 그렇게 버려졌던 현수막은 누군가의 손에 쥐어질 '마음의 가방'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이곳에서 폐현수막은 단지 재활용되는 것이 아니다. 그 천 위에는 불성(佛性)과 자비의 철학, 절제의 수행, 공동체의 연대가 새겨진다. 정찬 스님이 직접 세탁하고 펼친 그 한 장의 천에는 일체유정무정 모두가 불성을 지녔다고 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고스란히 담긴다. 스님이 "버리면 쓰레기지만, 다시 쓰면 공양"이라 말하는 이유다.

올해 상반기 도림사에서 만들어진 폐현수막 가방은 무려 6000여 개. 가방들은 복지관, 초등학교, 요양병원, 구청, 공공기관 등으로 전달됐다. 어린이용, 노트북용, 약봉투용 등 다양한 용도의 가방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수행의 메시지를 품은 결과물이다.

정찬 스님은 이를 "걸어 다니는 환경 교육"이라고 부른다. 한 땀 한 땀에 담긴 나눔의 손길이 자연과 사람, 생명과 공동체를 다시 잇는 환경 실천이기 때문이다.

생활에서 시작된 수행, 절터를 꽃피우다

"환경 운동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살아온 것이지요."

정찬 스님의 말은 조용하지만 분명했다. 어린 시절 마루 밑에 쌓인 닭똥과 마당의 쓰레기를 매일 치우며 자랐다. 위생과 정리정돈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몸이 먼저 기억한 습관이었다. 정돈되지 않은 공간을 보면 먼저 몸이 반응했고, 낭비되는 물건이나 함부로 버려지는 것에 민감했다. 무엇이든 오래 아끼고, 쓰임을 다한 뒤에도 다시 살릴 수는 없을까 고민하는 습관은 훗날 도림사를 '녹색사찰 1호'로 일군 삶의 태도로 이어졌다.

스님에게 수행은 특별한 공간이나 시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정갈하게 접은 보자기, 다시 씻어 쓰는 유리병 하나, 손으로 길러낸 수세미 하나에도 마음을 담는다. 스님에게 불교란 생활 그 자체이며, 절제된 삶은 수행의 또 다른 이름이다.

"부처님은 일의일발(一衣一鉢)로 한평생을 사셨어요. 쓰레기를 남기지 않으셨고, 청정국토를 남기셨죠. 환경은 곧 불교이고, 불교는 곧 생명을 아끼는 일입니다."

스님이 1992년 도림사에 처음 들어섰을 때 절터는 거의 폐허였다. 축대는 무너져 있었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았다. 사람들이 외면한 그곳에서 스님은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다. "이곳을 극락정토로 만들겠다"는 다짐은 땅을 일구는 일부터 시작됐다. 흙을 고르고 나무를 심으며 마당에 꽃을 가꾸는 작업이 이어졌다.

2018년부터 본격적인 불사가 시작되면서 도림사는 서서히 모습을 바꿔갔다. 지금은 30여 종의 꽃이 계절마다 피어나고 채소밭에는 상추와 감자, 들깻잎과 호박이 무농약으로 자란다. 도랑을 가로지르는 오솔길과 잔디밭은 단정하게 정돈돼 있고, 마당에는 까치가 뛰놀며 유치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진다.

이 모든 풍경은 정찬 스님이 실천한 수행의 결실이자, 신도들과 함께 만들어 낸 조화로운 삶의 공간이다. 그 안에서 자연은 살아 숨 쉬고, 사람은 자연과 더불어 호흡하며 살아간다.

스님은 말한다.

"죽어서 가는 극락보다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꽃이 피고 새가 날며 사람들이 함께 웃을 수 있는 극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공동체의 힘, 울타리를 넘어 세상으로

도림사에서는 봉제 작업을 위한 손길들이 자연스럽게 모인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다. '함께 만든다'는 마음, '뜻을 같이한다'는 다짐이 이들을 움직인다. 스님의 외침 하나면 모두가 웃으며 제자리를 찾는다.

"나는 그냥 말단 일이나 맡지요."

스님은 그렇게 자신을 낮추며 봉제의 가장 기초적인 일부터 함께한다. 천을 나르고 가위질을 하며 재봉틀 앞에 앉는다.

봉제 작업은 스님의 뜻에 공감하고 그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자 모인 불자들의 '자발적 수행'이다. 바느질이 서툰 이들도, 천을 처음 재단해 보는 이들도 서로 돕고 배우며 기꺼이 시간을 내어 앉는다. 그들이 만드는 것은 단지 가방이나 수세미가 아니다. 이들은 마음을 꿰매고 관계를 이어가며 정성을 바느질한다.

스님은 늘 말한다.

"이것은 환경운동이기 전에 수행입니다."

그 말에 공감한 불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나부터 실천하겠다'는 다짐으로 이곳에 모인다. 폐현수막이 가방으로 다시 태어나고, 낡은 천이 보자기 주머니로 거듭난다. 그 과정에 담긴 것은 기술이 아니라 정성,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길'에 대한 실천이다.

스님의 말 속에는 자발적으로 모인 이들에 대한 깊은 신뢰와 감사가 담겨 있다. 그리고 그 신뢰는 도림사를 생태공동체로 만들고, 수행과 일상이 맞닿는 공간으로 변화시킨다.

이러한 실천은 이제 도림사의 울타리를 넘어, 세상으로 향한다. 정찬 스님은 '안에서의 수행'에 머물지 않고, 그 정신을 바깥으로 확장시킨다. 지난해 열린 부산불교박람회에서는 부산불교환경연대 부스를 직접 꾸려 시민들에게 폐현수막 가방과 천연 수세미, 보자기 주머니 등을 소개했다. '지구사랑'이라는 문구가 적힌 앞치마를 두른 스님은 봉사자들과 함께 하루 종일 상담을 이어갔다. 그의 실천은 단지 결과물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삶의 철학을 공유하는 전법이다.

신도들과 함께 도심 숲과 공원에서 환경정화 캠페인을 펼치고, 겨울이면 낙동강으로 향해 고니들에게 삶은 고구마와 곡식을 나눈다. 사람과 짐승을 가리지 않고 모든 생명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의 실천은 진정한 의미의 평등공양이다.

함께 걷는 길, 실천은 알림에서 시작된다

정찬 스님은 언론을 통해 '녹색사찰 캠페인'을 제안하고, 도림사에서의 실천 사례를 적극적으로 사회에 알리는 데 앞장섰다.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며, 환경 실천이 절 안의 일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해야 할 수행임을 전하고자 했다. 스님이 먼저 알리고 나서는 데에는 분명한 뜻이 있다.

"이건 나 혼자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같이 가야 하는 길이지요."

스님에게 실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닌 공동의 길이며, 그 시작은 의식의 전환이다. 그래서 방송뿐 아니라 강의와 다양한 대외활동에도 직접 나선다.

지난해 불교박람회에서는 직접 만든 폐현수막 가방과 천연 수세미, 보자기 주머니를 들고 시민들과 마주했고, 올해는 반야선원 환경 강좌에 초청돼 손수 만든 물품을 꺼내 보이며 말했다.

"이게 바로 부처님처럼 사는 일입니다."

알림은 곧 포교이고, 실천은 곧 수행이라는 인식 아래, 스님은 오늘도 세상 속으로 걸어 나간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도림사 안팎에서 '행동'으로 이어졌다. 도림사에서 스님과 불자들은 쉼 없이 생태 실천을 이어왔다. 보자기 천주머니 제작은 물론 사단법인 미소원과 부산여성불자회, 방곡초등학교 등과 협력해 지구사랑 가방을 제작·나눔했고, 부민복지관·재단법인 불국토·자원봉사센터·우복동 한의원 등 다양한 기관과 연계해 환경 봉사도 꾸준히 이어왔다.

설 명절에는 간장과 식용유 선물에 지구사랑 가방을 활용했고, 공원 정화 활동, 환경 강좌와 생태 강연 등에도 적극 참여했다. 또한 친환경 수세미, 신문지 봉투, 단청 작업, 생태방생, 페트병 수집과 재활용까지 절 안에서 시작된 실천은 마을과 도시, 이웃 생명에게로 퍼져 나가고 있다.

정찬 스님의 실천은 절 안에 머무르지 않는다. 폐현수막 하나를 다시 살리는 손길, 쓰레기를 줄이려는 생활의 태도, 생명을 향한 작은 배려는 수행이자 전법이며 이 시대를 향한 실천적 응답이다. 도림사에서 시작한 생태 활동은 신도와 지역사회로 확산됐고, 방송과 강의, 캠페인 등을 통해 공동체 실천의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청정국토는 특정한 장소나 미래에만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여기서부터 만들어 가는 삶의 방식이며, 함께 걸어야 비로소 완성되는 길임을 정찬 스님은 행동으로 보여 주고 있다.